

상남단지의 수종갱신지

어느 곳보다도 산 많지만 사유림 면적은 적어… 인제에서 사유림 경영 활성화하기

인제군은 15만 8,948㏊라는 광활한 산림 면적을 자랑하며 다양한 산림관광·휴양 명소와 프로그램으로 국민의 발걸음을 모으지만, 사유림 경영 분야에선 고민이 깊다. 산림의 대부분이 설악산국립공원,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등 국·공유림으로 사유림은 19%에 불과해 민간 산림경영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기 때문이다. 지방소멸의 압력 아래, 높은 부재산주 비율과 태백산맥의 험난한 지형도 사유림 경영이 성장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.

이에 인제군과 인제군산림조합(이하 인제조합)은 인제 남부의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자 2018년 4차 선도산림경영단지 공모에 응모하여 전북 완주, 경북 의성과 함께 선정됐다. 그 결과 2019년부터 10년간 총 75억 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으며 상남 선도산림경영단지(이하 상남단지)를 조성하기 시작했다.

상남단지는 790㏊, 171개 필지 규모로 117명의 산주들이 참여하는 사유림 100% 선도산림경영단지다. 사업을 시작한 2019년을 기준으로 입목축적은 ㏊당 154㎥, 임도밀도도 ㏊당 17.5m로 전국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산림경영을 하기 좋은 여건이었다.

인제조합은 10년간 80㏊의 경제림 조림, 400㏊의 숲가꾸기, 6.8㎞의 임도 개설로 임도밀도 ㏊당 25.13m를 달성해 사업 시작 50년 후인 2068년부터 연간 1,600㎥의 목재를 보속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. 특히 강원도의 산림이라 지형이 험한 만큼 임도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으며, 이미 ㏊당 27.34m라는 임업선진국 수준의 임도밀도를 달성했다.

인제조합에서 선도산림경영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남상민 계장은 "상남단지 조성에 관하여 산림조합과 지자체가 지향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목재 생산"이라며 "2028년까지 개벌 기준 64㏊, 면적 기준에 대해 약 1만 2,000㎥의 임목 생산 계획을 세웠으며, 지금까지 56㏊ 면적, 1만 1,217㎥의 목재를 생산해 산주 소득 8,888만 원을 창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"고 설명했다.

상남단지에서 선택한 경제수종은 낙엽송과 소나무이지만, 산주 의사에 따라 자작나무 등 특용수도 고려하고 있다. 남 계장은 "경제림단지의 조성 목적에 맞는 경제수 식재도 중요하지만,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주의 의사로 이것이 곧 사유림 선도산림경영단지의 특징이라 생각한다"며 "특정 수종의 경제적 가치를 찾아내고 이점을 부각하는 방향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"고 전했다.

지난해 9월 개최됐던 제11회 상남단지 운영협의회

